



CEO Brief

2021.10. 제2021-19호

CEO Brief는 보험산업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보험회사 CEO와 유관기관의 기관장분들께만 제공되는 리포트입니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규제 방향

요약

최근 금융산업에서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혁신이 확산되어 금융산업 구조가 변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전통적 금융규제 체계에서 사각지대를 발생시켜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금융안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금융당국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금융규제 체계로의 전환, 특정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소비자보호 관련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법적책임 부여, 새로운 유형의 시스템리스크 발생 메커니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 디지털 환경 변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 최근 금융산업에서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혁신이 확산되고 있으며, 비금융회사의 시장 진입으로 협력과 경쟁이 심화되는 등 산업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회사의 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도 확장되는 등 금융산업에서의 비금융회사의 양적, 질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 금융회사는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부 기술회사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향후 금융회사의 가치 사슬 분절화(Fragmentation)가 심화되어 제3자 서비스 이용 및 아웃소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금융산업에서의 경쟁구도가 기존 개별기업을 중심으로 한 단순한 형태에서 협력집단, 즉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복잡한 형태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새롭게 등장한 상품 및 서비스는 기능별 분화, 탈중앙화, 높은 확산성 및 편리성 등이 주요 특징으로 부각됨
 - 금융회사가 포괄적으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기술회사가 차별화된 개별 서비스 중심으로 대체하면서 금융 서비스가 기능별로 분화(Unbundling)되고, 금융 부분의 디지털 플랫폼화를 촉진시킴
 - 금융업 분화와 함께 분산원장기술의 발달로 금융서비스가 기존 금융시스템과 분리되는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및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가 진행되고 있음



CEO Brief

- 디지털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는 고객 수, 데이터 획득량, 상품 및 서비스 품질 및 범위 간 상호증폭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확산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됨
-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고객 중심의 성격이 강해 금융소비자 효용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2. 주요 규제이슈

○ 시장경쟁 측면에서 규제차익, 불공정경쟁, 데이터 독점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기존 금융회사와 신규 비금융회사 간 등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방식 및 수준이 달라 규제 차익이 발생하여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할 수 있음
- 디지털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는 플랫폼기업의 시장지배력 구축을 용이하게 해 효율성 증진으로 발생한 사회적 후생을 협력회사 및 소비자가 아닌 플랫폼기업이 독점할 수 있음
- 온라인 중심의 사업모형은 금융·비금융 데이터 등 고객정보에 대한 집중현상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한 고객정보에 대한 독점은 금융시스템의 정보효율성을 낮춤

○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규제 사각지대, 데이터 유출, 공정성 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규제 사각지대로 영업행위 규제 측면에서 충분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소비자피해 발생 시 책임소재가 모호해져 피해구제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음
- 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는 개인정보의 대규모 유출 또는 오·남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신뢰성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음
- 기술사용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금융소외가 발생할 수 있고, 디지털기술 기반 금융서비스는 알고리즘 등 내재기술의 높은 정보비대칭성과 낮은 설명가능성으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금융회사의 위험추구 및 새로운 시스템리스크 발생 메커니즘 등으로 금융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음

- 비금융회사와의 과도한 경쟁으로 수익기반이 약화된 금융회사들은 낮아진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할 수 있음
- 운영리스크 관리 실패 등 기존 금융시스템 및 금융회사와는 다른 유형의 메커니즘을 통해 시스템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음
- 불완전한 고객신원확인(Know Your Customer; KYC) 및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 복잡한 산업구조 등은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음



CEO Brief

3. 금융규제 방향

- 규제 사각지대로 인한 규제차익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업권별 규제에서 보다 유연한 금융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비금융회사의 금융시장 진입과 영위에 있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을 충실히 적용하는 한편, 시장 혁신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를 훼손하지 않도록 비례성 원칙도 충실히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단기적으로 기존 금융법에서 업무 정의의 합리화, 스몰-라이센스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현행 권역별, 열거주의 중심의 금융규제를 기능별, 포괄주의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빅테크 등 특정 기업이 금융시장에서 지배력이 확대되는 경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경쟁정책에 있어 금융당국과 경쟁당국 간 정책적 조정(Coordination)이 필요함
 - 금융시장에서 악탈적 가격정책, 수직적 통합전략 등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이 필요하고, 사업 간 경계를 넘나들며 경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당국과의 소통도 필요함
- 소비자피해에 대한 법적책임 부여 시 자기책임과 함께 시장지배력 및 배상자력 등을 반영하고, 이에 적합한 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금융산업 구조 및 사업모형이 복잡해짐에 따라 시장참여자 간 다양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법적책임 부여가 필요함
- 경쟁심화로 인한 금융회사의 위험추구를 모니터링하고, 금융산업 구조 변화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시스템리스크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국내 금융그룹감독은 자본규제(Pillar 1) 중심으로 운영리스크 등 새로운 유형의 시스템리스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Pillar 2) 및 시장규율(Pillar 3)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황인창 연구위원
ichwang@kiri.or.kr